

‘소록도 천사’ 노벨평화상 추천 서명 100만 돌파

마리안느·마가렛 2명 간호사
범국민추천위, 진행상황 발표
국제간호사협회도 추천 동참



송귀근 고흥군수가 지난달 3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고흥군 제공>

‘소록도의 천사’ 마리안느와 마가렛 간호사의 노벨평화상 추천인 서명이 100만 명을 돌파했다.

고흥군에 따르면 마리안느와 마가렛 노벨평화상추천 범국민추천위원회(위원장 김항식)는 지난달 3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내외신 기자회견을 갖고 서명운동 진행상황을 발표했다.

추천위원회는 오스트리아 출신의 간호사 마리안느와 마가렛을 노벨평화상 후보자로 추천하기 위해 2017년 구성된 이후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100만인 서명운동을 펼쳐왔다.

기자회견은 신경림 대한간호협회회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마리 제인 와킨스 영국 상원의원과 주한 오스트리아 대사의 격려사, 김항식 추천위원장의 사업소개, 국제간호협회(ICN) 등의 해외추천영상 상영, 기자들의 질문 답변 순으로 진행됐다.

신경림 대한간호협회 회장은 환영사에서 “두 분의 사랑, 희생과 봉사정신은 간호

사가 갖춰야 할 덕목이고, 두 간호사는 그 모범을 보여 주었기에 국제간호협회와 함께 노벨상 후보로 추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사업소개에 나선 김항식 추천위원장은 “두 간호사는 고흥 소록도에서 20대 젊은 시절에 시작해 70세에 이르기까지 국경을 초월해 한 평생 사랑을 실천하고, 빈손으

로 고국인 오스트리아로 돌아갔다”며 “2020년은 세계보건기구에서 ‘간호사의 해’로 지정했고, 현대 간호학을 확립한 나이트게일 탄생 200주년이 되는 해에 노벨상 추천은 더욱 의미가 깊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귀근 고흥군수는 “노벨상 추천에 함께 동참해 준 모든 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고흥군과 전라남도, 법무부 등과 함께 다양한 선양사업을 펼치고 있다”고 소개했다.

마리안느와 마가렛 노벨평화상추천 범국민추천위원회는 늦어도 내년 1월말까지 두 간호사를 노벨평화상 후보자로 노벨위원회에 추천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u@



독립운동기념 제32회 전라남도교육감기 단축 병 성지 보성에서 역사속의

3·1운동 100주년, 학생독립운동 90주년 기념
보성서 도교육감기 학생 마라톤대회 성료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그리고 학생독립운동 90주년을 기념하는 제32회 전라남도교육감기 학생단축마라톤대회가 지난 2일 보성군에서 개최됐다.<사진> 보성공설운동장에서 열린 대회에는 전라남도 초·중·고등학교 학생과 교육 가족 등 1500여명이 참여해 호국선열의 얼과 정신이 서린 ‘의향 보성’의 곳곳을 밟으며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날 대회에는 장석용 전남교육감과 김철우 보성군수도 참여해 학생들과 함께

함한 레이스를 펼쳤다.

보성은 호남에서 가장 먼저 3·1운동이 일어난 남도지방의 중심지로 임진·정유제란부터 광복까지 끊임없이 의병이 창 의하며 구국활동을 펼쳐왔다.

보성군은 임진·정유제란에서 의병을 창 의한 죽천 박광전 선생, 임계영 전라좌도 의병, 한말 달살이 의병장 안규홍 등 지금까지 777명의 의병을 발굴한 바 있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

곡성군, 멜론 스토리·체험 프로그램 개발 지역 농업 신성장 동력 융·복합산업 추진

곡성군이 올해 2월부터 진행한 ‘멜론 마을 스토리 및 체험 프로그램 개발’을 마쳤다고 5일 밝혔다.

곡성군은 국내 멜론 최대 생산지로 지난 40년간 멜론을 재배하며 고품질 생산 기술을 축적하고 있다.

상품성이 뛰어난 멜론을 지역 농업의 신성장 동력으로 삼기 위해 곡성군은 체험과 관광을 연계하는 융·복합화를 추진 중이다.

핵심 사업으로 현재 멜론복합체험센터를 조성하고 있으며, 조성 완료 후 체험센터 운영에 필요한 체험 프로그램 개발에

나섰다.

멜론 마을 스토리가 필요해 1982년 전국 최초 멜론 시범단지 조성으로부터 2019년 멜론 생산 재배 활동까지 곡성 멜론의 역사와 문화적 자원을 발굴했다.

이를 토대로 ‘줄집고, 신나고, 맛있는’이라는 곡성 멜론의 이미지를 도출했다.

체험 프로그램 개발에는 레크리에이션과 체험활동을 결합한 놀이농장(Play Farm) 개념을 도입했다.

멜론 드로잉, 멜론 아이스크림 만들기, 멜론 업사이클링 등 프로그램도 진행할 계획이다.



멜론 스토리·체험 프로그램 개발 회의 모습.

곡성군 관계자는 “개발이 완료된 멜론 스토리 및 체험 프로그램을 지역 멜론 생산자 및 주민들이 활용하도록 곡성 멜

론 농촌 융·복합화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곡성=김계중 기자 kjkim@

‘신의 한 수’가 된 섬진강기차마을 성공 토대 곡성군, 새로운 ‘섬진강 이코노미’ 기반 구축

곡성군이 ‘신의 한 수’가 된 섬진강 기차마을의 성공 신화를 발판 삼아 새로운 이코노미 기반 구축에 나섰다.

곡성군은 관광 곡성의 일등공신인 섬진

강 기차마을의 성공스토리를 토대로 새로운 섬진강 이코노미 실현을 준비 중이라고 5일 밝혔다.

기차마을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기차

마을과 섬진강을 축으로 국도 17호선을 따라 로드투어형 관광 기반을 조성하겠다는 포부다.

이를 위해 군은 솔바람 치유의 숲, 6070 낭만곡성 영화로 청춘어람, 곡성스테이션 1928, 섬진강 주변 전선 지중화사업, 압록 상상스쿨 등이 진행 중이거나 준비 중에 있다.

기차마을을 성공시켰지만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지 않으면 그 영광이 계속 되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곡성군 관계자는 “기차마을은 지역경제와 일자리 창출의 보고이자 곡성이라는 브랜드를 알리는 전국에 알리는 역할을 해왔다”며 “지난 15년의 영광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의 100년을 위한 섬진강 이코노미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곡성=김계중 기자 kjkim@

보성 ‘별교꼬막축제’ 30만 관광객 ‘북적’

소설 ‘태백산맥’의 주무대이자 꼬막의 주산지인 보성군 별교읍에서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3일까지 4일간 열린 ‘제18회 별교꼬막축제’에 약 30만여명의 관광객이 찾아 성황리에 마무리 됐다.

꼬막축제는 ‘별교갯벌 레저벨레대회’, ‘소설 태백산맥 문학제’, 민족음악가 ‘채동선 풍구르’와 동기간 개최하는 등 역대급 축제 콜라보로 별교의 맛을 제대로 알렸다는 평을 받았다.

대한민국 가요계가 총출동 해 보성군 가을 통합축제 지원 사격에 나선 것 또한 성공적인 축제의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

다.

매일 밤 화려하게 수놓은 불꽃쇼도 이제는 빠질 수 없는 관광 포인트로 자리잡고 있다.

축제기간 조정래 작가가 직접 참석해 애독자들과 함께 인문학 토크쇼를 갖고, 소설 태백산맥의 주무대인 별교의 곳곳을 걷는 문학기행도 호응을 얻었다.

별교읍 장양리 일원에서 펼쳐진 ‘레저벨레대회’에서는 갯벌 풋살대회를 비롯해 벨레 레이스, 갯벌 달리기, 꼬막 줍기 행사 등이 열렸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

구례군, 노인복지시설 7곳서 300명에 결핵검진 실시

구례군은 8일까지 노인요양복지시설 등 7개소에서 300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결핵검진을 실시한다.

이번 노인요양시설 결핵검진은 결핵 발병과 사망이 다른 연령층보다 높은 노인 결핵을 조기에 발견하고 확산을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검진 대상은 집단생활로 결핵에 취약한 노인요양시설의 환자를 포함해 입소자와 종사자 등이다.

검진은 대한결핵협회와 연계해 흥부 역

스레이 촬영과 유소견자 객담 검사를 실시하며 특히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위해 누워 있는 상태로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이동 검진장비를 이용해 결핵검진을 실시한다.

구례군 보건요원 관계자는 “고령의 어르신들은 증상이 없더라도 매년 검진을 받는 것이 결핵을 예방하고 건강을 지키는 일이다”고 강조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



지오옥션부동산 중개법인(주)

경,공매 컨설팅

“30년 경력의 조여사 010-6211-4585”

부동산 추천 물건

- 광주 서구 치평동 (중심상업지역) 토지 : 434.44㎡(131.4평) 건물 : 2536.91㎡(767.42평) 지하1층 지상7층 매매가 53억 상무지구 이마트 인근 보증금 1억7천 월수익 2천5백
- 광주 광산구 월계동 (중심상업지역) 토지 : 764.8㎡(231.35평) 건물 : 463.54㎡(140.22평) 지상4층 매매가 49억 보증금 4억 월수익 1천9백만 임방울대로 대로변 위치최상
- 광주 광산구 우산동 (2종일반주거지역) 토지 : 623.8㎡(188.7평) 건물 : 1642.56㎡(496.87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 32억 현 사우나운영중, 세계수영대회 선수촌아파트 앞.
- 광주 동구 학동 (2종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 토지 : 770.1㎡(232.95평) 건물 : 1458.86㎡(441.3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 28억 학동 아이파크 인근 대로변
- 광주 광산구 신가동 (2종일반주거지역) 토지 : 900㎡(272평) 건물 : 1900㎡(547평) 지상6층 매매가 36억 전시광고효과 좋음, 신가재개발부근, 투자적합
- 광주 광산구 삼거동 (계획관리지역) 토지 : 4556㎡(1378평) 건물 : 2766.44㎡(836.844평) 지하1층 지상3층 매매가 40억 현 요양원 운영중, 빛그린국가 산업단지 인근
- 광주 남구 주월동 (2종일반주거지역) 토지 : 306㎡(64.61평) 건물 : 494.4㎡(149.56평) 지상4층 매매가 9억3천만원 삼육고 인근 푸른길도서관 앞 공실없음

“상무지구 · 법원 앞 수익률, 입지조건 최상 건물 다량 보유”

경매 추천 물건

- 공 장 ▶ 광주 광산구 고동동 토지 : 1705.3㎡(515.9평) 건물 : 1358.46㎡(410.9평)
- 주 택 ▶ 광주 북구 장등동 41번지 토지 : 598㎡(180.9평) 건물 : 263.04㎡(79.6평) 지상3층 감정이 4억7천8백만원 최저가 3억3천5백만원
- 근린주택 ▶ 광주 북구 두암동 894-8번지 토지 : 150.3㎡(45.5평) 건물 : 318.9㎡(96.5평) 지상3층 감정이 3억5천8백만원 최저가 3억5천8백만원
- 근린주택 ▶ 광주 광산구 우산동 1065-4 토지 : 1131.8㎡(342.4평) 건물 : 894.38㎡(270.5평) 1층 제조업소,물류창고 2층주택 감정이 18억8천7백만원 최저가 (70%) 13억2천1백만원
- 아 파트 ▶ 광주 북구 용봉동 상용예가 54평형 감정이 5억6천만원 최저가 3억9천2백만원
- 아 파트 ▶ 광주 광산구 장덕동 대방5차 49평형 감정이 6억4천5백만원 최저가 (70%) 4억5천2백만원
- 아 파트 ▶ 광주 서구 쌍촌동 푸르지오 47평형 감정이 7억2천1백만원 최저가 5억4백7십만원
- 아 파트 ▶ 광주 남구 봉선동 더셀2단지 54평형 감정이 11억2천6백만원 최저가 7억8천8백만원

“광고 외 모든 경매물건 상담, 진행가능”

광주·전남 10~200억대 건물, 병원 다량보유 / 매매·임대·급매 전문/ 경·공매 전문

대표공인중개사 전민규 010-4234-8640, 062-714-2251